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학과적응도 간의 관계

박지혜* · 강혜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학과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Holland 일치성 가설에 위배되는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른 네 집단 분류하였다. 또한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검사(S형)의 직업적 흥미검사(일반성향검사), 스트레스대처방식검사(정유미, 2004), 학과적응척도(박성미, 2001)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Data Edito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빈도분석,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치도는 학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스트레스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만 학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 분류를 한 결과 일치도가 높지만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 일치도가 낮지만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과적응에 있어 전공-흥미 일치도 이외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나타내며, 특히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과적응 촉진을 위한 스트레스대처방식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 학과적응도

* 이 논문은 박지혜(2012)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며 2012년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에서 구두발표 하였음.

* 교신저자 : 박지혜(27tatata@kut.ac.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대학원생

** 강혜영(hy97kang@kut.ac.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는 대학 입학 시 선택하게 되는 전공(학과)이라고 할 수 있으며(양명희, 박명지, 김희정, 2010),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물론 현명한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합격이 가능한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장문영, 2005). 따라서 학과선택은 진로상담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과 선택을 돕기 위한 상담 장면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Holland 일치성 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Holland(1997)는 개인이 자신의 흥미유형을 파악하여 그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일(공부)할 때 만족도와 성취도,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이 이론은 특히 전공별 학과 특징이 각기 구분되는 대학교 환경에서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Holland이론 중 특히 일치성 가정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 결과는 통일된 의견으로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경향이 있다. 즉, 어떤 연구는 일치성 가정을 지지(김병진, 2008; 박명지, 2008; 윤영숙, 2011; Posthuma & Navran, 1970; Feldman, Smart & Ethington, 1999; Carson & Mowesian, 1993)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현재(2006)는 일치도와 학과만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조원숙(2008)의 경우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은 동일유형과 가장 낮은 반대유형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Holland의 일치성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대상이나 측정도구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치성 이외에 다른 중요 변인이 학과적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윤영숙, 2011).

그 중 학과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될 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상태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과의 적응 문제에서도 부적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어떤 대처를 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학교 및 학과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명희, 박수선(1998)은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관계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수경(2005)의 연구에서도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으며, Russell과 Petrie(1992)는 '대학학업적응에 대한 모델'에서 학업적응 성공의 예언변인으로 학업요인, 사회환경요인, 심리요인 등 세 범주의 요인들을 제

시한 바 있는데 사회환경요인의 하위요인에 생활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강혜영(2011)은 전공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기효능감 외에 스트레스대처능력 등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관련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과적응도는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전공-흥미 일치도 이외에 스트레스대처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강혜영(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전공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이외의 변인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의 핵심인 개인-환경 일치성 가설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Holland 일치성 가정에 대한 검증으로써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고 일치성 가정에 위배되는 집단 즉, 일치도가 높으면서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 일치도가 낮으면서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이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여, 내담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상담을 위한 토대와 학과적응 문제를 다루는데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과적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Holland 일치성 가설과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2-1.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특히,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으면서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 전공-흥미 일치도가 낮으면서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존재하는가?

2-2.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른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전공-흥미 일치도

전공-흥미 일치는 각 개인이 가지는 직업흥미와 전공과 관련된 직업 환경 속의 직업흥미 유형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호도검사(S형)의 일반성향검사를 통해 개인의 직업흥미유형을 확인하고, 한국가이던스에서 발간한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안창규, 안현의, 2003)의 전공분류를 이용하여 Healey와 Mourton(1983) 두 자리 코드방법에 따라 일치도 측정을 한 결과로 본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과 흥미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스트레스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그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내적·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환하는 인지·행동적 노력(Lazarus & Folkman, 1984)을 스트레스대처방식이라 보고 그 하위요인을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한다(김정희, 이장호, 1985). 각각의 대처방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식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학과적응도

본 연구에서는 학과적응도를 학과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과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안영복, 1985)으로 보고, 박성미(2001)가 사용한 세 가지 요인인 전공 선택의 만족, 학업수행의 만족, 진로목표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학과적응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공-흥미 일치도

가. Holland 직업흥미이론

Holland에 따르면 각 유형의 환경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비슷한 작업환경 속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도 유사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역시 실제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기업형(E), 관습형(C) 등의 여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형(S)의 사람이 사회적(S)의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가진 성격적 특성과 작업환경이 요구하는 성격적 특성 간에 구조적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박성미, 2001).

나. 전공-흥미 일치

전공-흥미 일치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흥미와 각 전공과 관련된 직업 환경 속의 직업 흥미 유형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홀랜드의 직업분류표에 나오는 전공 코드와 학생들 개개인의 코드의 매칭은 전공과 흥미의 일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공-흥미 일치에 대한 일치도는 자신의 진로 의식과 자기이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직업적 환경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개념적 방향성을 갖게 하므로 자신의 진로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공-흥미 일치도는 각 개인의 흥미, 성격, 가치, 동기, 능력 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선택, 흥미개발, 직무만족도, 직업이나 학업의 성공도를 매우 잘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조원숙, 2008).

다. 일치도 측정 방법

박성미(2001)는 전공-흥미의 일치도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성격유형코드와 전공유형코드의 일치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한 자리코드, 두 자리코드, 세 자리코드 방식을 활용한다. 그 중 두 자리 코드 방법인 Healey와 Mourtton(1983) 일치도 방법은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과유형을 나타내는 세 자리 영문코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를 사용하여, 코드의 순서에 관계 없이 서로 일치하면 3점, 하나만 일치하면 2점,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1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생이 진로결정을 하려 할 때, 소속된 학과 유형과 대치되는 진로결정을 한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더 효과적이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Lawarus와 Folkman(1984)이 제시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분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나뉜다. 문제 중심적 대처에서 개인의 행동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적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의 근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변형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 정서 고통을 줄이거나 관리하려는 목표를 가진 다양한 시도를 말하며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론적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는 서로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절하게 두 가지 대처를 사용하므로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정희(1985)는 이러한 대처방식 척도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소망적 사고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등으로 대처방식을 구분하고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모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은 다양한 대처방식 중 각 상황에 맞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강은영, 2008).

3. 학과적응도

안영복(1985)은 학과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과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을 학과적응이라 하였다. 따라서 학과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학과 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 상황내의 제반요구에 균형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의 정도라고 한다(김용래, 199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2, 3, 4학년 학생 321명이며,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분포, 전공별 분포는 <표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인원수(명)	백분율(%)	항 목	인원수(명)	백분율(%)
성 별	남자	162	50.5	인문계열	39	12.0
	여자	159	49.5	사회계열	175	54.5
	전체	321	100.0	자연계열	28	8.7
학 년	2학년	61	19.0	전 공학계열	53	16.5
	3학년	75	23.4	공 예체능계열	8	2.5
	4학년	185	57.6	사범계열	13	4.0
				의학계열	5	1.6
	전체	321	100.0	전체	321	100.0

2. 측정도구

가. 직업흥미유형

개인의 직업흥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직업선호도검사(S형)의 한 부분인 직업적 흥미 검사(일반성향) 문항을 활용하였다. 직업선호도검사(S형)는 Holland의 이론을 기초하여 활용, 유능성, 직업, 선호분야, 일반성향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정숙(2005)은 5개 하위영역 중 개인의 직업적 성향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성향검사의 42개 문항으로 개인의 직업성격유형 두 자리를 확인하였다. 양정숙(2005)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신뢰도계수는 .75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공-흥미 일치도

흥미유형과 전공의 일치도 계산을 위하여 Healey와 Mourtton(1983)의 '두 자리 코드'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생의 성격유형과 전공유형을 나타내는 각각의 영문코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를 사용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일치하면 3점, 두 코드 중 하나만 일치하면 2점,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1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학과코드의 유형판단은 한국가이던스에서 발간한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안창규, 안현의, 2003) 중 전공분류를 활용하였다.

다. 스트레스대처방식척도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한 "대처방식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정희(1987)의 스트레스대처방식검사를 정유미(2004)가 다시 수정·보완한 검사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대처방식을 측정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적극적대처방식과 소극적대처방식으로 나뉘며 또다시 4가지 하위영역으로 문제중심적대처, 사회적지지추구대처, 소망적사고대처, 정서중심적대처 나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정유미(2004)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7 ~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 .81로 양호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과적응도

학과 적응도 측정을 위해 박성미(2001) 연구의 학과적응도 측정도구에서 전공 선택의 만족, 학업수행의 만족, 진로목표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측정한 강혜영(2011)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강혜영(2011)은 박성미(2001)의 학과적응도척도에서 학업성취, 학과만족, 진로목표의 안정성 세 요인 중 진로목표의 안정성의 하위변인 '목표안정성'이 '안정성'항목의 문항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검사문항은 총 24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혜영(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3,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처리를 위해 PASW Statistics Data Editor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산출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치도가 높으면서 적응도가 낮은 집단, 일치도가 낮으면서 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흥미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스트레스수준을 공변인수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N=321)

	평균(표준편차)	범위(최소값-최대값)
전공-흥미 일치도	1.87(0.64)	2(1-3)
적극적대처방식	29.65(3.87)	30(10-40)
문제중심적대처	14.55(2.18)	15(5-20)
스트레스 대처방식	15.11(2.44)	15(5-20)
소극적대처방식	27.22(3.47)	25(15-40)
소망적사고대처	14.67(2.23)	12(8-20)
정서중심적대처	12.55(2.35)	13(7-20)
학과 적응도	111.30(23.45)	119(49-168)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	30.00(6.99)	33(9-42)
학업수행의 만족	32.60(8.18)	42(7-49)
안정성	22.50(5.77)	29(6-35)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26.20(8.38)	36(6-42)

2.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가. 변인 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대처방식 중 적극적대처방식과 학과적응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r=.244$, $p<.001$)을, 하위변인 간에는 문제중심적대처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r=.281$, $p<.001$)을 보였고, 사회적지지추구대처에서도 정적상관($r=.136$, $p<.05$)을

보였다. 스트레스대처방식 중 소극적대처방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변인 중 정서중심대처가 부적상관($r=-.163, p<.01$)을 나타내었다. 전공-흥미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참고).

<표 3> 전공-흥미 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 학과적응도 간의 상관관계 (N=321)

	전공-흥미 일치도	학과적응도
학과적응도	.019	
적극적대처방식	-.039	.244***
문제중심적대처	-.054	.281***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추구대처	.136*
소극적대처방식	.019	-.054
소망적사고대처	-.026	.089
정서중심대처	.052	-.163**

* $p<.05$, ** $p<.01$, *** $p<.001$

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중 단계선택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를 설명하는 양은 8.3%(2단계, $R^2=.083$)였고, 이 중 적극적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의 6.0%(1단계, $R^2=.060$)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대처방식은 학과적응도의 2.3%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방식의 β (표준화계수)는 .303 ($t=5.261, p<.001$), 소극적 대처방식의 β (표준화계수)는 -.163($t=-2.830, p<.01$)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적극적대처방식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흥미 일치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표4> 참고).

<표 4> 전공-흥미일치도,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대한 학과적응도의 단계선택 중다회귀 분석 (N=32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Beta	t
1단계	(상수)	67.445	9.834		6.858***
	적극적대처	1.479	.329	.244	4.497***
R=.244, $R^2=.060$, 수정된 $R^2=.057$, F=20.221***					
2단계	(상수)	86.862	11.904		7.297***
	적극적대처	1.835	.349	.303	5.261***
	소극적대처	-1.102	.389	-.163	-2.830**
R=.288, $R^2=.083$, 수정된 $R^2=.077$, F=14.336***					

** $p<.01$, *** $p<.001$

다. Holland 일치성 가설과 다른 집단의 존재와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

1)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의 분류

Holland 일치성 가정의 확인을 위하여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을 분류하고, 일치성 가정에 위배되는 집단 즉, 전공-흥미 일치도가 낮더라도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과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더라도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전공-흥미 일치도 고(高) 집단은 두 자리 코드에서 자리위치 상관없이 전공과 흥미 코드가 모두 일치하는 집단이고, 전공-흥미 일치도 저(低) 집단은 두 자리 코드에서 전공과 흥미 코드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다. 또한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은 학과적응도 중앙치(110.00)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111점 이상인 집단은 고(高) 집단이고, 110점 이하인 집단은 저(低) 집단이다.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분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단별 사례수가 적어 집단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사례수가 136명인 이유는 전체 사례 수 321명 중 전공-흥미 일치도가 2점인 집단(한 자리 코드만 일치) 185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결과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가 모두 높은 집단이 27명(A집단, 19.9%) 전공-흥미 일치도는 높지만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이 20명(B집단, 14.7%), 전공-흥미 일치도가 낮지만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42명(C집단, 30.9%),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가 모두 낮은 집단이 47명(D집단, 34.6%)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고).

<표 5>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네 집단 분류 (N=136)

	학과적응도		계
	고	저	
전공-흥미 일치도	(A집단-27명, 19.9%) · 전공-흥미일치도 3점 · 학과적응도 총점111점이상	(B집단-20명, 14.7%) · 전공-흥미일치도 3점 · 학과적응도 총점110점이하	47명 (34.6%)
	(C집단-42명, 30.9%) · 전공-흥미일치도 1점 · 학과적응도 총점111점이상	(D집단-47명, 34.6%) · 전공-흥미일치도 1점 · 학과적응도 총점110점이하	89명 (65.4%)
계	69명(50.8%)	67명(49.3%)	

2)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 차이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른 네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하는 공분산분석을 적용하였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였다.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 간 적극적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6>과 같다. 전공-흥미 일치도는 낮지만 학과적응도는 높은 C집단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모두 높은 A집단, 전

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모두 낮은 D집단, 전공-흥미 일치도는 높지만 학과적응도는 낮은 B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변인으로서 스트레스수준을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6, p<.01$).

반면,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 간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과 표준편차,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표8>, <표9>와 같다.

<표 6> 전공-흥미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 간 적극적스트레스대처방식 기술통계

집단	M	SD	사례수
A	30.04	3.89	27
B	28.30	3.79	20
C	31.38	3.15	42
D	28.40	3.21	47
합계	29.63	3.64	136

<표 7> 전공-흥미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 간 적극적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50.59	1	50.59	4.41	.038
고-저집단	157.13	3	52.37	4.56	.004
오차	1501.79	131	11.46		
합계	121210.0	136			

<표 8> 전공-흥미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 간 소극적스트레스대처방식 기술통계

집단	M	SD	사례수
A	26.85	3.07	27
B	27.50	2.70	20
C	27.64	3.48	42
D	26.47	3.92	47
합계	27.06	3.47	136

<표 9> 전공-흥미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 집단 간 소극적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51.74	1	51.74	4.39	.038
고-저집단	52.23	3	17.41	1.47	.224
오차	1544.00	131	11.78		
합계	101208.0	136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Holland 일치성 가정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네 집단 간 스트레스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학과적응도 간에는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보면 소극적대처방식의 정서중심대처가 학과적응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과적응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전공-흥미 일치도는 학과적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스트레스대처방식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소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보다 좀 더 학과적응도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의 적응에 있어 어떠한 스트레스대처방식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과적응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학과 및 학교의 적응과 정적상관이,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적응과 부적상관이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송창용, 2003; 이옥주, 2003; 이연실, 2004; 방혜선, 2007; 이윤미, 2008)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학과적응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성미, 2001; 박명지, 2008; 강혜영, 2011)들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전공)만족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현재, 2006; 조원숙, 2009)를 일부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상담 현장에서 Holland이론이 검사의 해석 및 집단 프로그램 등 그 어떤 이론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론임을 생각해 볼 때, Holland의 이론 활용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내담자에게 적용하기보다 내담자 상황과 정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Holland이론의 확인과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또한 학과적응문제를 다루는 진로상담 및 지도 장면에서 전공-흥미일치도 이외 다른 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고, 특히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중요성과 관련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Holland 일치성 가정의 확인을 위해 일치성 가정에 위배되는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에 따른 네 집단을 분류하고 일치도가 낮더라도 적응도가 높은 집단, 일치도가 높더라도 적응도가 낮은 집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고저의 기준은 두 자리 코드법에 따른 일치도 점수 1점과 3점, 학과적응도점수의 중앙치 110점으로 하였고, 그 결과 일치도 점수 2점인 185명이 제외되고 136명의 사례수로 네 집단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D집단(일치도 저 - 적응도 저)은 47명(34.6%)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C집

단(일치도 저 - 적응도 고)이 42명(30.9%), A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고)이 27명(19.9%), B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저)이 2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일치성 가설에 위배되는 B집단과 C집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은 박성미(2001), 강혜영(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B집단과 C집단의 사례수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36명 중 63명으로 45.6%의 분포를 보여 많은 학생들이 Holland 일치성 가설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Holland 일치성 가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공 선택 및 학과적응에 관한 진로상담 장면에서 일치도 이외에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뿐 아니라, 진로지도에 있어 일치성 가설에 위배되는 B, C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네 집단 중 전공과 흥미의 일치도가 낮은 C와 D집단이 65.4%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토대로 선택하기 보다는 성적, 취업률, 주위의 조언 등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눈여겨 볼 부분은 일치도가 낮으면서 학과적응이 낮은 D집단이 가장 높은 분포(34.6%)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 할 경우 학과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과 선택에 대한 지도와 상담에 있어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네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C집단(일치도 저 - 적응도 고), A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고), D집단(일치도 저 - 적응도 저), B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저)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변인으로 스트레스수준을 고려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C집단(일치도 저 - 적응도 고), B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저), A집단(일치도 고 - 적응도 고), D집단(일치도 저 - 적응도 저) 순으로 나타났지만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이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며, 송창용(2003), 이옥주(2003), 이윤미(2008)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학교 입학 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을 하였어도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을 통하여 학과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흥미 일치도는 대부분 학과적응도를 위해 학과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기에 학과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학과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대처방식은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훈련 등을 통해 대학생활 중 일어나는 학과부적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중 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북, 충남, 경북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고 학과 계열별 표집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가 간소화된 척도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 상 학생들에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소화된 직업흥미검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직업흥미검사 전체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과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치도나 스트레스대처방식 이외에 다양한 개인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외 다른 요인들과 학과적응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학과적응문제를 다루는 진로상담에서 필요한 고려요인들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전공-흥미 일치도와 학과적응도 고저(高低)에 따른 네 집단 분류에서 각 집단별 특히, 일치도가 높지만 학과적응도가 낮은 집단과 일치도가 낮지만 학과적응도가 높은 집단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이 집단들의 질적 연구를 통해 집단 간 차이점을 확인하여 차별적 진로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2008).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영(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115-127.
- 김병진(2008). 홀랜드식 검사에 의한 직업유형 일치정도와 직무만족 및 직무성취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1993). 학습 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구성요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정희,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7(1), 127-138,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김현재(2006). Holland 직업선택이론에서의 일관도, 일치도, 변별도와 학과 만족도 및 진로 결정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지(2008).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가 진로성숙도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미(2001). 구조적 적응력 일치이론에 근거한 학과적응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혜선(2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유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창용(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1985).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 안현의(2003). **홀랜드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 서울 : 한국가이던스.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회지**, 29(2), 137-156.
- 양정숙(2005). 직업성격과 직무유형의 일치도 및 관계만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숙(2011). 전공-흥미 일치도와 성격5요인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05).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회지**, 17(3), 77-85.
- 이윤미(2008).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의 학교적응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문영(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2004).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 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 박수선(1998).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16, 83-100.
- 조원숙(2008).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arson, A. D., & Mowesian, R.(1993). Moderators of the prediction of job satisfaction from congruence: A test of Holland's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30-144.
- Feldman, K. A., Smart, J. C., & Ethington, C. A.(1999). Major field and person-environment fit: Using Holland's theory to study change and s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0, 642-669.
- Healey, C. C., & Mourtou, D. L.(1983). Derivatives of the self-directed search: Potential clinical and evaluative u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318-328.
- Holland, J. L.(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 Posthuma, A. B., & Navran, L.(1970). Relation of congruence in student-faculty interests to achievement in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25-356.
- Russell, R. K., & Petrie, T. A.(1992).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Assessment and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N. Y. : Wiley.

<Abstract>

University Students' Major-interest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daptation Department

Park, Ji Hye* · Kang, Hye Yo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undergraduates'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major adjustment. And in order to find there is any group violating Holland's congruence hypothesis, this paper divides them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major adjustment. Also, it examines the difference of stress coping behaviors among the four groups.

The followings are the chief results of this paper.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n major adjustment, congruence did not affect major adjustment significantl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dividing them into four groups by the degree of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major adjustment, there is one group with high congruence but low major adjustment and also a group with low congruence but high major adjustment.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of stress coping behaviors among the four groups by the degree of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major adjustmen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groups.

Above results imply that in major adjustment, we should consider factors other than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in their stress coping behaviors and also develop programs to facilitate major adjustment. Also, it implies that in the use of Holland's theory, it is crucial to use it based on the client's various information and uniqueness rather than to apply it in a conventional or unconditional way.

Keywords: Major-Interest Congruence, Major Adjustment, Holland's Congruence Hypothesis, Stress Coping Behaviors

* Correspondence: 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7tatata@kut.ac.kr

**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hy97kang@kut.ac.kr